

화순 운주사,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전남도 8월 11일 등재 계획 밝혀...6년 가량 소요 예정

‘천불천탑’으로 유명한 전남 화순 운주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8월 11일 전남도는 화순군과 운주사(주지 정형) 석불석탑(석불 101구, 석탑 22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잠정목록 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이 잠정목록 신청서를 오는 11월까지 유네스코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과 전남도·화순군은 이후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을 구성하고, 종합학술조사와 국외 비교 연구를 거쳐 정식으로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접수할 계획이다.

과 꾸준히 협의를 해왔다. 전남도는 운주사 석불석탑이 독특성과 균질성, 조형성 등에서 세계적 가치를 보유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앞으로 5~6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부터 관계부처와 협의 ‘천불천탑’ 부각 자료 마련

군집성·조형성에서 가치 조명

운주사는 화순군 도암면 대조리 천불산에 있는 사찰로, 천불천탑으로 불릴 정도로 많은 탑과 불상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연화탑과 굴미륵석불, 보물 제796호인 9층 석탑, 보물 제797호인 석조불감, 보물 제798호인 원형다층석탑, 부부 와불 등 다수



유네스코 등재가 추진되는 화순 운주사의 와불. 운주사의 불상은 1000개에 달한다.

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운주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먼저 잠정 목록으로 올린 후 등록 신청서를 문화재청과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세계 유산 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유네스코 세계 유산 위원회 의장단 회의에서 통과되면, 최종 세계 문화유

산으로 정식 등재된다.

한편, 전남 도내에는 화순 고인돌이 유일하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상태다.

서남해안 갯벌과 필암서원, 선암사·대흥사, 낙안읍성, 신안·영광 염전, 강진 청자요지, 해남 공룡 화석지 등이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올라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소록도에서 펼쳐진 자비나눔 봉사

광주 무각사 자비봉사단, 말복 맞이 삼계탕 보시

말복을 맞아 불교봉사단이 소록도를 찾아 자비나눔봉사를 펼쳤다.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 자비봉사단은 8월 12일 전남 고흥 소록도를 방문해 지역 주민과 한센 병 환자들을 위한 자비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날 행사는 봉사단원 20여 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현지에서 직접 조리한 650인분의 삼계탕과 김치 등을 한센병 환자와 마을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소록도는 한센병 환자를 위한 국립소록도병원이 들어서 있는 섬이다. 과거 한센 병 환자들의 애환이 깃들여 있는 섬이지만, 현재는 700여명의 환자들이 애환을 딛고 사랑과 희망을 가꾸고 있다.

이날 봉사를 위해 자비봉사자들은 전남 미리 인삼, 녹두 등 재료를 준비하고, 당일

광주 새벽에 무각사에서 출발, 소록도 도착 후 즉각 삼계탕 650인분을 조리하여 이날 주민들에게 대접했다.

무각사 자비봉사단은 지난 2011년부터 해마다 여름에는 소록도 환자들을 위한 삼계탕 공양 봉사를 하고, 겨울철에는 동지팥죽 공양과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자연음식문화원, 홀몸 어르신 음식 제공

전북불교네트워크 부설 자연음식문화원(원장 유지원)이 배우자와 사별한 어르신들을 위해 자연음식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사진>



이번 자연음식 체험은 8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총10회 걸쳐 전주 평화사회복지관(관장 성동학)에서 진행됐다. 체험에는 남편과 사별한 10명의 홀몸 어르신들이 동참해 자연음식 조리법을 직접 배우고 실습했다.

이번 자연음식문화원의 사별 어르신 자연음식 체험전은 무더위에 지친 홀로 되신 어르신들이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한 음식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됐다.

식사를 혼자 해결해야하는 대부분의 참가 어르신들이 인공조미료나 인스턴트식품 위주의 식생활에서 벗어나 우리 몸에 유해한 음식들을 멀리하기를 바라는 취지

다. 이날 음식도 전통음식과 자연음식 위주로 엄선된 식재료와 식단으로 구성됐다. 참가 어르신들은 “집에서 어렵거나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은 번거로워서 균형 잡힌 음식을 먹기 힘들었는데 간편하고 영양 잡힌 음식을 만들어 볼 수 있었다. 혼자 사는 집에서 유용하게 사용 할 것 같다”며 “특히 원장님의 자연음식 강의가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줘서 좋다”고 입을 모았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매주 토요일은 월정사 ‘작은음악회’로

8월 한달간 ‘천년 숲 바람의 선물’ 주제로 다채로운 향연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가 휴가철 방문객을 위해 8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작은 음악회를 연다. ‘천년 숲 바람의 선물’을 주제로 마련되는 이번 작은음악회는 토요일 오후 4시 난다야외테크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문화의 향연이다.

송라이터 이재형 씨와 서울시민형 아티스트로 선정된 크로크노트의 기타 합주가 펼쳐졌다.

먼저 8월 8일에는 ‘우리 소리’를 주제로 여창가곡과 가야금 산조 공연 등이 펼쳐졌다. 박민희 중요무형문화재 가곡 이수자의 여창가곡을 비롯해 박연희씨의 가야금 산조 박연희, 차승민씨의 대금산조 등 젊은 소리꾼들이 우리가락의 흥겨움과 아름다움을 선사했다.

22일에는 ‘추억의 가요와 섹스폰’을 주제로 추억의 무대가 마련된다. 1974년 KBS 10대 가수상을 수상한 가수 박진 씨와 섹스폰 연주자 신승아, 최선중, 윤상조 씨가 환상의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이날 공연은 오후 7시에 열린다. 29일에는 ‘바이올린 소나타’를 주제로 뉴욕 카네기홀에서 초청독주회 등을 연 실력과 연주자 이서현 바이올리니스트와 아시아 국제 쇼팽콩쿠르 2위에 빛나는 조강은 피아니스트의 협연이 펼쳐진다.

8월 15일에는 ‘어쿠스틱 기타와 노래’를 주제로 기타연주가 펼쳐졌다. ‘얼굴’ ‘겉다보면’ 등 3개의 디지털 싱글을 발표하는 등 홍대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싱어

월정사 측은 “방문하는 불자와 관광객들이 산사의 저력을 무대로 마음 놓고 쉴수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033)339-6616 노덕현 기자

“부처님의 옷, 우리 손으로 만들어요”

화염사, 8월 8~12일 전통가사제작 특강 ‘화제’



스님의 가사를 만드는 특별한 강좌가 인기가 있다. 구례 화염사 성보박물관(관장 원목스님)은 지난 8월 8일부터 12일까지 범음료에서 ‘부처님의 옷을 짓다’ (아시아민족조형학회와 함께하는 전통가사제작) 특강을 개최했다. <사진>

제작한 가사 고불의식이 화염사 각향전에서 주지 영광스님을 증명법사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시아민족조형학회(회장 박윤미)와 함께한 이번 강좌는 전체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통가사 9조와 25조의 제작실습이 진행됐다. 8월 11일에는 화염사박물관에서 특별전시중인 서산대사와 벽암 각성스님 가사를 직접 친견하는 기회를 가졌다.

연관 스님은 화향사를 통해 “부처님 이래로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수행사의 의복이자 법복인 전통가사를 제작하는 특별한 화염사에서 이루어진 것은 희귀한 인연이라 생각한다”며, “인류역사상 오랜 세월 동안 유행이 변치 않았던 가사가 현대에 이르러 다소간의 규범이 흐트러지고 전승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번 특강에 동참하신 많은 분들이 큰 자부심을 가지고 가사의 전승과 발전에 이바지 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특강에는 제24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명천스님(함양 향운암)의 지도로, 가사의 고불의식 등 전통불교의례를 참가자들이 함께 실습하게 했다.

한편 화염사는 아시아민족조형학회와 협력을 통해 2016년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가사전을 화염사 성보박물관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강좌의 마지막 12일은 참가자들이 직접

금강대, 중국 문화 탐방단 발표회

금강대(총장 한광수)는 재학생 40여명으로 구성된 중국문화 체험단 귀국 발표회를 8월 10일 개최했다.

서 각 팀들은 중국내 진출한 한국기업의 발전상 소개, 일차별 탐방지 소개, 인천과 천진의 경제자유구역 비교, 중국인들의 낮은 외래어 사용률 등을 통한 모국어 사랑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 경제발전상 등 알찬 내용을 담아 서로의 의견을 교류했다.

이에 앞서 금강대는 중국의 주요 시장과 문화 현장을 체험하여 떠오르는 중국에 대한 인식 및 대응 역량 등을 제고하고자 8월 3~7일 4박 5일간 파견한 바 있다.

한광수 금강대 총장은 “중국은 한두번 방문으로 알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번 탐방을 계기로 앞으로 학교가 제공하는 글로벌 교육프로그램에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이번 체험단은 교내 선발과정을 거쳐 총 14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북경·천진 5개팀, 상해·항주 9개팀 등 2개 코스로 나눠 각각 진행됐다. 전 일정 경비는 전액 장학금으로 학교에서 지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귀국 후 체험단 교류를 위한 발표회에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宗正 興山 현불

宗도모집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ICB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흥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1) 입종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 사찰 등록증
- ◇ 주지 임명장
-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